

오차대에서의 행복했던 한 학기

조수빈(한국 · 고려대학교)

기대 반, 걱정 반을 가지고 시작했던 오차대에서의 한 학기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동경해왔던 일본에서의 유학 생활을 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서기 하며 지내야 한다는 사실에 내심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주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일본 생활에 금방 적응하여 알찬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학기를 되돌아보면, 유학생 수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취직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으로 신문에 사진이 게재된 것이나, 휴먼 라이브러리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경험 등이 생각나네요. 특히, 부속 초등학교 학생들과 교류했던 건 정말 즐거웠기에 개인적으로 부속 중학교와의 교류에도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부속 학교와의 연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오차대에서 유학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일본인 학생들과 같이 듣는 전공수업은 저에겐 도전이었습니다. JLPT N1이긴 했지만, 자격증 공부와 현실은 다르더라구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튜터나 유학생 상담실 등 유학생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많아서 무사히 한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일본어는 잘하지 못하지만, 처음 일본에 왔을 때와 비교해보면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토, 오사카와 시즈오카를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와는 분위기가 달랐는데, 특히 은각사의 아름다운 단풍과 시즈오카에서 본 후지산은 잊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가장 잊을 수 없는 건 오차대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겠죠. 낮가림이 심한 저에게 먼저 말 걸어 주고, 같이 식사하며 놀았던 추억은 영원히 기억에 간직될 것 같습니다.

저에겐 즐겁고 행복했던 한학기였습니다. 오차대에서 유학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학경험을 토대로 보다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